

ISBN 978-89-6211-614-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전전략포럼 보고서

2010. 10.

목 차

I. 포럼의 구성 및 운영 개요	2
1. 포럼의 목적	2
2. 포럼 위원 구성	2
3. 포럼 운영 방법	4
가. 기본방향	4
나. 주요 추진일정	4
다. 회의장소 및 운영지원	4
II. 포럼의 운영 경과 및 실적	5
1. 포럼 운영 경과	5
2. 세부 운영실적 및 내용	6
가. 제1차 포럼	6
나. 제2차 포럼	7
다. 제3차 포럼	8
라. 제4차 포럼	9
마. 제5차 포럼	10
바. 제6차 포럼	11
III. 포럼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	12
1. 1차년도 포럼 운영성과	12
2. 포럼의 발전방향	13
<부록 1> 포럼 회의록	14
<부록 2> 포럼 발표자료	31

I. 포럼의 구성 및 운영 개요

1. 포럼의 목적

- 본 발전전략 포럼은 다양한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상호교류 및 자문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으로써, KISTI가 지식정보시대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견인 및 지원하는 국가정보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함
 - 대내외 R&D 환경변화에 대응한 KISTI 중장기 발전방향의 모색과 자문
 - 정부의 출연(연) 정책변화에 따른 KISTI 임무 및 기능의 적정화 방안 제언
 - 전문가 교류확대를 통한 KISTI 이해도 증진 및 정책아이디어 제시

2. 포럼 위원 구성

-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전·충청 권역의 산·학·연 등 각계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쌍방향적인 정보교류 및 자문결과의 효과적인 원내 전파를 위하여 KISTI의 관련 부서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함
 - 외부 전문가 위원
 - i) 산·학·연의 과학기술정책 및 정보전문가
 - ii)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관계자
 - iii) 지역 언론계 및 과학기술자 대표 등 총 20명 내외
 - KISTI 내부 관련 부서장
 - KISTI 선임연구부장, 기획관리본부장, 정책연구실장 등 3명
 - 포럼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KISTI 부서장은 해당 포럼 개최 시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함
 - 포럼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ISTI 담당자를 실무간사로 함

<2010년도 KISTI 발전전략포럼 위원 구성 현황>

No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비고
1	위원장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장 (기초연 전문위원)	조성복	공공기관
2	위 원	국립중앙과학관장	이은우	정관계
3	위 원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김태일	정관계
4	위 원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정관계
5	위 원	전자신문 지역총국 국장	윤원창	언론계
6	위 원	대덕넷 대표	이석봉	언론계
7	위 원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전 공공기술연구회이사)	손진훈	학계
8	위 원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공공행정학회장)	조만형	학계
9	위 원	대전대학교 무역통상학과 교수	김선근	학계
10	위 원	한국연구재단 전략기획홍보센터장 (고려대 교수)	전승준	연구계
11	위 원	과실련 전국공동대표 (한국화학연구원)	이규호	연구계
12	위 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한국원자력연구원)	민병주	연구계
13	위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	현병환	연구계
14	위 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획조정실장	임창만	공공기관
15	위 원	대전과학기술정보협의회회장 (한국에어로(주) 대표)	김왕환	산업계
16	위 원	대전과학기술정보협의회회원 (케이맥(주) 대표)	이중환	산업계
17	간사위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KISTI 정책실장)	윤종민	학계
18	내부위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부장	김중권	KISTI
19	내부위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획관리본부장	민재규	KISTI
20	간 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한선화	KISTI
21	실 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이용호	KISTI

3. 포럼 운영 방법

가. 기본방향

- KISTI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상호간의 자유토론과 의견 교환
- KISTI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 그룹간의 쌍방향적 정보교류를 통한 발전 방안의 모색
- 주요 KISTI 연구사업 및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학습과 아이디어 제안 및 공유
 - KISTI 주요사업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초청발표와 포럼 위원들의 자유발제를 병행 추진

나. 주요 추진일정

- 2010년도 포럼 운영기간 : 2010. 4. - 2010. 12. (약 9개월)
- 세부 추진일정
 - 매월 1회씩(넷째 주 목요일 원칙) 정기포럼 개최 : 총 7-8회 정도
 - 2010. 4. 15 : 포럼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2010. 5~11월 : 제2차~제7차 회의(분야별 주제발표 및 토론 개최)
 - 2010. 12월 : 포럼 결산 및 정리

다. 회의장소 및 운영지원

- 포럼 장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KISTI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포럼 위원 및 내부 참석인원 등을 고려하여 포럼 장소를 적절히 결정
 - 필요한 경우, 호텔 등 외부 장소에서 회의와 만찬 등을 병행하여 개최
- 포럼 운영에 있어서는 KISTI 담당부서(정책연구실)에서 실무적으로 지원함
 - 회의자료 준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등

II. 포럼의 운영 경과 및 실적

1. 포럼 운영 경과

- KISTI 발전전략포럼은 당초의 일정계획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총 6회에 걸쳐 개최되었음(연말까지 2회 추가 개최 예정임)
 - 2010. 4 ~ 2010.10 : 총 6회 개최
 - 2010.11 ~ 2010.12 : 2회 개최(예정)

- 포럼의 주제는 최근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동향 및 KISTI를 둘러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 KISTI 내부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도 수시 주제 선정을 통해 발표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청취함

<KISTI 발전전략포럼 개최일정 및 운영내용>

일 정	포럼내용 (발표 및 토론 주제)	비 고
제1차 (4.15/목)	- 포럼구성 : 위원 위촉 및 상견례, 포럼운영 안내 - 포럼내용 : “KISTI 현황 및 발전방향” (KISTI정책실장)	- 포럼 출범식
제2차 (5.27/목)	- 포럼내용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소개 및 시연” (KISTI NTIS 사업단장)	- KISTI 사업의 발전방안자문
제3차 (6.21/월)	- 포럼내용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정책이슈와 과제” (STEPI 민철구박사)	- 출연(연) 이슈 발굴 및 토의
제4차 (7.22/목)	- 포럼내용 : “출연(연) 연구생산성 향상방안 및 사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병환박사)	- 출연(연) 이슈 발굴 및 토의
제5차 (8.20/금)	- 포럼내용 : “TBED 프로그램의 개요 및 평가사례 소개” (SRI International 박종원박사)	- 국내/외 과학 기술정책동향
제6차 (10.12/화)	- 포럼내용 :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 소개” “차세대 출연연구소의 방향” (우송대학교 국제교육원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교수)	- 국내외 동향 - KISTI 사업의 발전방안자문
제7차 (11월)	- 포럼내용 : “미래의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한 KISTI 역할 재정립 방향” (자유토론)	- KISTI발전자문
제8차 (12월)	- 포럼내용 : 1차년도 KISTI 발전전략 포럼 결산	- 포럼 결산

2. 세부 운영실적 및 내용

가. 제1차 포럼

개최 개요

- 일시 : 2010. 4. 15 (목) 16:00 - 18:00
- 장소 : KISTI 국제회의실
- 참석 : 총 16명 (외부 11명, 내부 5명)

외부	조성복, 이택구, 윤원창, 이석봉, 손진훈, 조만형, 김선근, 민병주, 김왕환, 이성우, 윤종민
내부	박영서, 김중권, 민재규, 한선화, 이용호

포럼운영 주요내용

- 포럼 출범식 행사 개최
 - 포럼 위원 위촉 및 상견례 실시 (KISTI 원장 및 참석 위원)
 - 포럼 구성 목적 및 주요 운영방안에 대한 안내 설명 (간사위원)
- 포럼 주제발표 및 토론
 - 발표 : “KISTI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한선화 KISTI 정책연구실장)
 - 주요 토의내용 :
 - 정보분석, 정보유통, 슈퍼컴퓨팅 각 부분의 주요 사업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문 및 KISTI 답변 청취
 -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각 사업부문에 대한 위원들의 발전방향 제언
 - KISTI 및 출연(연)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보교류
- 기타 사항
 - 포럼 운영체제 정비 : 위원장, 간사 등 선출 및 주요 운영일정 수립
 - 포럼 주제 및 운영방법 토의 : 발표주제 및 발표자 선정, 진행방법 등

나. 제2차 포럼

개최 개요

- 일시 : 2010. 5. 27 (목) 16:30 - 18:00
- 장소 : KISTI 국제회의실
- 참석 : 총 16명 (외부 11명, 내부 5명)

외 부	조성복, 이택구, 윤원창, 이석봉, 김선근, 윤종민, 전승준, 민병주, 현병환, 임창만, 김왕환
내 부	이정희, 김중권, 한선화, 김재수, 이용호

포럼운영 주요내용

- 포럼 주제발표 및 토론
 - 발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소개 및 시연” (김재수 KISTI NTIS 사업단장)
 - 주요 토의내용 :
 - NTIS 사업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 및 KISTI 답변 청취
 - NTIS 정보수집·유통에 있어서의 현황분석 및 향후 발전적 제도정비 방안 제언
 - * 국가연구보고서 비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비공개 정보의 공개·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NTIS 정책수립 및 조정을 위한 각 부처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방안
 - NTIS를 KISTI의 대표적인 연구사업 프로그램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한 사업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교환
- 기타 사항
 - 포럼 주제로 KISTI와 지역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발굴하도록 함

다. 제3차 포럼

개최 개요

- 일시 : 2010. 6. 21 (월) 16:30 - 18:00
- 장소 : KISTI 국제회의실
- 참석 : 총 16명 (외부 11명, 내부 5명)

외 부	조성복, 이택구, 윤원창, 이석봉, 조만형, 윤종민, 이규호, 민병주, 김왕환, 이중환, 민철구
내 부	박영서, 김중권, 최희윤, 한선화, 이용호

포럼운영 주요내용

- 포럼 주제발표 및 토론
 - 발표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 (STEPI 민철구 박사)
 - 주요 토의내용 :
 - 최근의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둘러싼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발표자 답변 청취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지배구조 변화 방향에 따른 KISTI의 영향 예측 및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 및 의견교류
 -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의 강구 필요성 제안
 - 대덕연구단지 및 대전지역에서의 KISTI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방안 모색 필요성 제기
- 기타 사항
 - 최근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조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회의 주요 검토 사항 및 내용에 대한 정보교환 실시

라. 제4차 포럼

개최 개요

- 일시 : 2010. 7. 22 (목) 16:30 - 18:00
- 장소 : KISTI 국제회의실
- 참석 : 총 14명 (외부 9명, 내부 5명)

외 부	조성복, 윤원창, 이석봉, 김선근, 윤종민, 현병환, 민병주, 임창만, 김왕환
내 부	박영서, 김중권, 민재규, 한선화, 이용호

포럼운영 주요내용

○ 포럼 주제발표 및 토론

- 발표 : “출연(연) 연구생산성 향상방안 및 운영사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병환박사)

- 주요 토의내용 :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기획전략 및 운영 사례에 대한 중요 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토론
 - * PM작성을 통한 기획 및 3P(Patent, Paper, Product) 중심 연구관리
- 국가차원의 중장기 R&D기획 및 개별 연구기관의 연구기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KISTI의 임무 및 업무수행방안 논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덕특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과 관련한 KISTI의 역할증대 및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을 통한 KISTI의 산업 시장정보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 기타 사항

- 다음달(8월) 발전전략 포럼도 휴가기간이지만 계속하여 개최하기로 함

마. 제5차 포럼

개최 개요

- 일시 : 2010. 8. 20 (금) 16:00 - 17:30
- 장소 : KISTI 국제회의실
- 참석 : 총 15명 (외부 11명, 내부 4명)

외 부	조성복, 이택구, 윤원창, 이석봉, 손진훈, 조만형, 윤종민, 현병환, 민병주, 임창만, 박종원
내 부	김중권, 민재규, 한선화, 이용호

포럼운영 주요내용

- 포럼 주제발표 및 토론
 - 발표 :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역경제개발사업-오하이오주 TBED프로그램 사례와 평가(Making an Impact : Assessing the Benefits of Ohio’s Investment in Technology-Base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스탠포드연구소 박종원박사)
 - 주요 토의내용 :
 - 오하이오주 TBED프로그램 운영사례에 대한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식 공유 및 의견교환
 - 기술사업화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및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한 토의
 - 미국의 제3의 프론티어 프로그램 등 과학기술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 검토
- 기타 사항
 - 다음달(9월)은 “추석 연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10월에 포럼을 개최함

바. 제6차 포럼

개최 개요

- 일시 : 2010. 10. 12 (화) 16:30 - 18:00
- 장소 : KISTI 국제회의실
- 참석 : 총 19명 (외부 13명, 내부 6명)

외 부	조성복, 이택구, 윤원창, 이석봉, 손진훈, 김선근, 조만형, 윤종민, 전승준, 민병주, 김왕환, 이중환, 임마뉴엘
내 부	박영서, 이정희, 김중권, 민재규, 한선화, 이용호

포럼운영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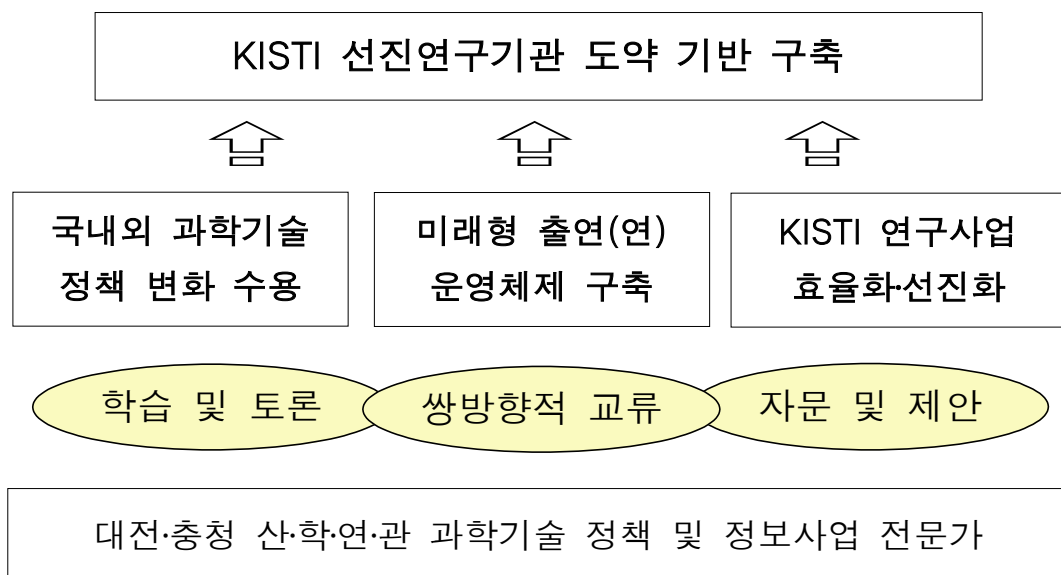
- 포럼 주제발표 및 토론
 - 발표 :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 소개” (한선화 KISTI 정책실장)
“차세대 출연연구소의 방향” (우송대학교 국제교육원 임마뉴엘 페스 트라이쉬 교수)
 - 주요 토의내용 :
 -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의 운영경과 및 기대성과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향후의 발전방향 토의
 - 인문사회학자의 관점에서 본 출연(연) 등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차세대 운영전략 및 관리방법론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의
 - 미래 정부출연연구소의 바람직한 운영방향과 관련한 지속적인 검토의 필요성 제기
- 기타 사항
 -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개편)과 관련한 정보교환 및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토론을 실시함

Ⅲ. 포럼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

1. 1차년도 포럼 운영성과

- 본 발전전략포럼은 KISTI가 국가 과학기술혁신의 중추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고, 고객지향의 서비스체계 구축 및 국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함
- 특히, 최근의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동향 및 출연(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 하에서, KISTI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 아울러, KISTI 연구사업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발전전략 포럼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KISTI가 미래 선진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KISTI 발전전략포럼 운영의 기대성과>



2. 포럼의 발전방향

- KISTI 발전전략포럼은 대전·충청 지역 산·학·연·관의 과학기술 정책 및 정보사업 전문가들의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을 통해,
 - KISTI로 하여금 대내외의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기관 운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또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의 중추기관으로서 KISTI 연구사업을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정보의 습득과 교환 및 건설적인 자문과 제언을 제공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음
- 이와 같은 포럼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제1차 년도에는 포럼의 구성 및 운영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제2차 년도부터는 KISTI가 미래 선진형 정보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능 및 연구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문함
 - 또한, 국가 과학기술발전 및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KISTI의 기능과 역할을 실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신규 연구사업의 개발 및 추진에 대하여도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포럼 자체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포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예들 들면, 각 부분별 연구사업의 개편내용 및 개별 연구사업의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포럼위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상호 토론하는 방안을 연구함

<부록 1>

포럼 회의록

제1차 KISTI 발전전략 포럼 회의록

2010. 4. 15. 16:30~18:00

KISTI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참여인사

외 부	조성복, 이택구, 윤원창, 이석봉, 손진훈, 조만형, 김선근, 민병주, 김왕환, 이성우, 윤종민
내 부	박영서, 김중권, 민재규, 한선화, 이용호

□ 회의내용 요약

<환영사 : KISTI 원장>

- 조금 전에 슈퍼컴 5호기 부지 및 과학기술디지털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2만평 가량을 대전시에서 무상 기증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함

- 본인이 KISTI에 부임한 이후, KISTI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고 있음
- 바쁘신 중에도 KISTI 발전전략 포럼의 구성에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앞으로 본 포럼을 통해 KISTI의 해온 일, 나아갈 길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음. 매달 한 번씩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음

<포럼의 구성 및 운영방향>

-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럼 일자리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 포럼의 좌장은 조성복 자문위원이 1차로 맡아서 운영해 주시기로 함
- 포럼 운영과 발표 대상 주제 등과 관련하여, 포럼은 기본적으로 KISTI를 알리는 자리, KISTI에게 바라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목표로 포럼의 취지를 살려 운영함
- 이와 같은 포럼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포럼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하며, 처음에는 심화된 주제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되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함
- 향후 포럼의 운영을 점차 확대 발전시켜서, 장기적으로 지역 내의 과기인 포럼과 같은 방식으로 확대되도록 함
- 포럼의 발표 주제 및 내용에 관하여 제시된 의견은 3가지 정도로 정리됨
- 거시적 과학기술정책 이슈(출연연 거버넌스, 출연연(KISTI) 역할) 발표 및 토론(발표자: 행정부/국과위/과총 등 정책 수립, 기획 관련 인사)
- KISTI 주요 사업 발표 및 포럼위원 자문(발표자: KISTI)
- 지역사회/과학기술 관련 최근 부상 이슈 및 KISTI에 기대하는 역할 발제(발표자 : 포럼위원)

<발표 주제에 대한 토론 및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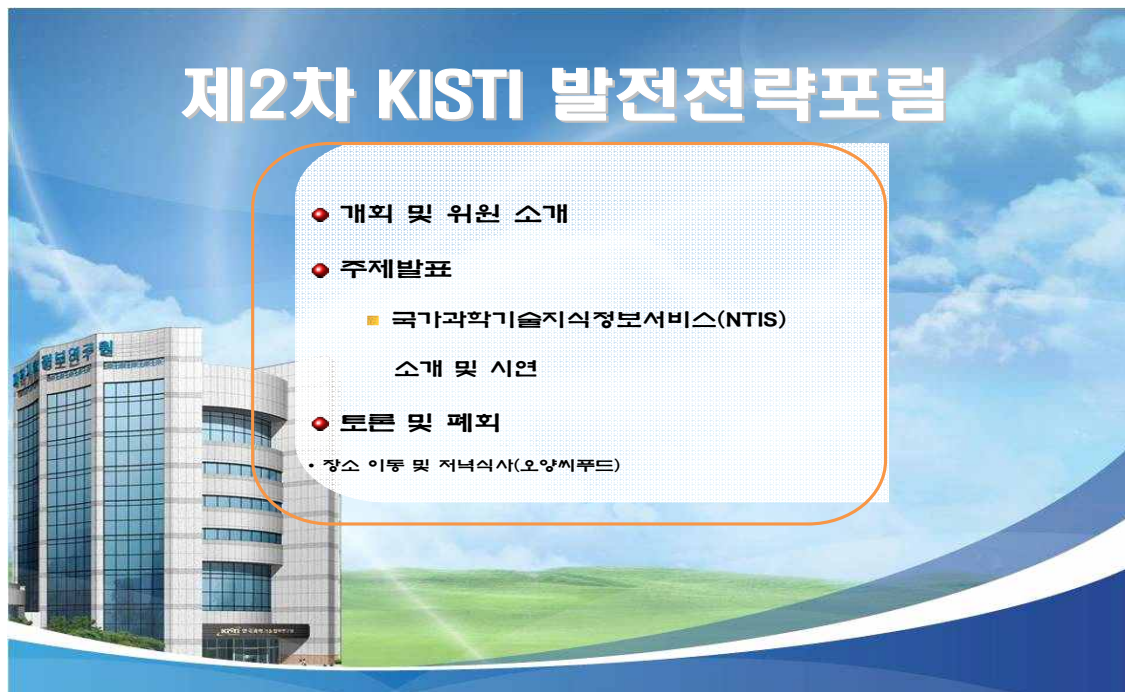
- KISTI가 기업에 다가온다는 생각이 듦. 그런데 교육과 과학만 대두되고 기술이 슬그머니 빠지는 느낌임.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기업이 친근감 있게 참여할 수 있음. 향후에는 기술도 부각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아이덴티티 문제가 있음. 교육과 과학은 교과부, 기술은 지경부 소관임. 기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고민해보아야 함. 예를 들어 교과부 소속으로 간다면 그 체제하에서의 역할에 맞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위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지원 부분은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교육과 과학을 접목시키는 선에서 우선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음
-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기업과 대덕특구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이 많이 들어왔으므로, KISTI와 대덕특구지원본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음
- 출연연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는 것임. 예를 들어 그린 자전거 공용시스템은 ETRI가 개발하였음. 수돗물 처리, 제설제 등은 화학(연)이 개발해주고 있음. 지역사회에 대한 논의는 매우 반가운 이야기임.
-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토의 외에도, KISTI의 주요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몇 가지의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었음

제2차 KISTI 발전전략 포럼 회의록

2010. 5. 27. 16:30~18:00

KISTI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참여인사

외 부	조성복, 이택구, 윤원창, 이석봉, 김선근, 윤종민, 전승준, 민병주, 현병환, 임창만, 김왕환
내 부	이정희, 김중권, 한선화, 김재수, 이용호

□ 회의내용 요약

- 국가 R&D사업 중에 연구과제의 비공개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임. NTIS는 인문사회 연구회 내용도 들어 있는데 대부분 비공개임. 비공개 과제는 연구보고서 제출 자체가 안 되고 있음

- 07-08년도의 경우, 약 61%의 보고서가 비공개 대상임. 교과부의 경우 75%임. 따라서 과제 성과물을 서비스하기가 원천적으로 쉽지 않음. 일정기간 동안만 비공개하고, 일정기간 후 공개로 가야 하는데 현재는 비공개로 해서 제출 자체가 안 되고 있음.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음.
- 실질적으로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보안과제로 지정하지 않고 비보안과제로 많이 하고 있음. 보안과제 지정되면 관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비보안 과제로 하고 결과물을 비공개로 많이 가는 추세임.
- NTIS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접근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NTIS에 포함되는 국가 R&D의 coverage는 예산기준으로, 65%가량 수집이 되고 있음. 연차별 계획에 의해 2013년 까지 실시간 수집율을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예산 조기집행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손바닥 보듯이 예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예산 흐름이 잘 안 보임. 금년에 나가지도 않을 돈을 금년에 다 받는 경우도 있음. 내년도 예산 때에는 내년 집행 예산만 주고 싶다는 정부부처의 수요가 있음. NTIS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과 연동하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 되는지 궁금함.
- 예산 집행의 흐름 집행 모니터링은 아직 안 되어 있음. 4대 비목 정도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검토 중에 있음. R&D카드 시스템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 기재부에서 별도로 생각 중에 있음. 4대 비목에서 투자정보서비스는 NTIS에서 기획 중에 있음.
- NTIS는 잘 되어 있는데, 15개 부처의 협조가 잘 안된다는 점이 문제임. DB가 핵심임. 부처의 협조체제를 높이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임.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KISTI에서, 예를 들어 교과부 장관이 나서서 DB 오픈 등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함.

-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은 별로 성공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중복과제 검색은 항상 고민함. NTIS의 경우, 하나의 기능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성이 있고 100% 커버가 되는 완벽한 DB가 있어서 그게 성공적으로 런칭되어야 성공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나의 필드라도 국가적으로 완전한 데이터 셋이 정확하게 구축되어야 함.

- NTIS의 활용촉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연구재단 등 기관 내부에 계신 실무자 분들이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 연구재단 외에도 각 부처에 계신 분들이 시스템을 직접 활용하지는 않고 특정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받는 경우가 많음. 부처에서 요청했을 때 결과물이 NTIS DB를 활용해서 작성되었음을 알리도록 하고, 또 연구재단에서 전문가 DB 통합할 때 NTIS DB와 포맷이 같도록 정리되었으면 좋겠음

- NTIS의 아쉬운 점은 구조상 최근 데이터가 1년 전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함. 연구기획에서는 데이터의 최신화가 중요한 부분임

- 최근 국과위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음. 연구생산성 관련 전반을 다루는 범임. 이 계획수립에서 강력한 주장을 한 것이 국가 R&D예산의 5%를 인프라 부분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임.
 - 연구생산성의 효율성 제고 맨 앞에 있는 것이 인텔리전스 시스템임. NTIS를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함. 많은 예산을 넣고 잘했으면 좋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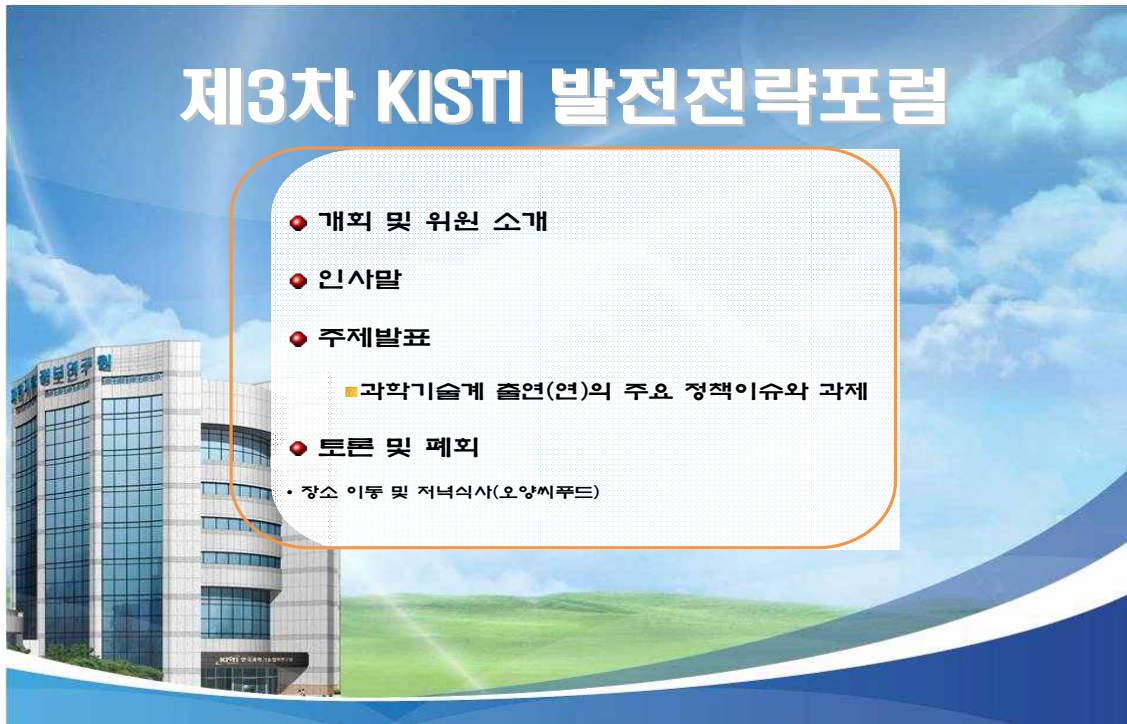
- NTIS는 KISTI 입장에서는 간판 프로젝트임. 연구소를 대변하는 얼굴마담 역할이 NTIS임. 그런 관점에서는 1단계 구축분이 약함.
 - NTIS에 기대하는 부분은 시스템 자체가 8만명 연구자의 놀이마당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임. 모든 연구정보, 채팅, 블로그 같은 놀이마당도 필요함. NTIS 사업의 2단계는 그런 개념이 필요함.

제3차 KISTI 발전전략 포럼 회의록

2010. 6. 21. 16:30~18:00

KISTI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참여인사

외 부	조성복, 이택구, 윤원창, 이석봉, 조만형, 윤종민, 이규호, 민병주, 김왕환, 이중환, 민철구
내 부	박영서, 김중권, 최희운, 한선화, 이용호

□ 회의내용 요약

- 앞으로 출연(연)의 큰 방향이 양적인 것 보다 질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가야할 것임. 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

- 함. 최근 월드컵 축구와 관련하여 조직론 세미나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국가대표 뽑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함. 그 당시에 인종, 학력을 떠나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임.
- 앞으로 출연(연)에서도 차별 철폐도 인재선발에서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함. 축구 조직은 총체적 협력 시스템임. 그런 걸 벤치마킹 한다면 출연(연)의 힘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함.
- 출연(연) 활성화는 수십 년 된 과제임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음. 출연(연) 활성화와 비슷한 문제가 중소기업 지원임. 둘 다 해결이 잘 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 문제, 출연(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외적인 문제, 즉 사업비가 핵심 사안임. 출연(연)의 핵심은 거버넌스가 아니라 연구비임. 현 정부가 얘기하는 출연(연)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출연(연) 연구 포트폴리오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과, 5조 8천억 중 성과창출은 1.1%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 등이 있음
 - 출연(연) 문제가 다시 이슈화 되는 것이 답답함. 민간위에서 논의한다는데 잘 해결되면 좋겠음.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함.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임. 이 번 개선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함.
 - 이번에는 과기계 출연(연)의 의견반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출연(연)에 가야 할 돈이 각 부처에 쪼개져서 들어가는 문제. 다시 말해서 연구사업이 부처별로 쪼개져서 가는 문제 등은 다음 정부라도 꼭 해결되어야 함
 - 양보다 질적인 문제는 출연(연)이 제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임. 획기적 대안 제시는 많지 않으나, 근본적 차원에서 생산성 문제가 제시될 수 있음.
 - 특히, 예산 포트폴리오, 공공R&D의 미션과 역할 영역, 우수직원 확보가 큰 문제임. 출연(연)은 특별히 직장 안정성이 중요함. 출연연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님.
 - 외국에는 평균 법인격 하나당 1500명 수준임. 연구조직이 크게 비대해지

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됨. 국내 전체 연구원은 8000명 정도가 됨. 이를 고려한 개편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우리나라 정부출연(연) 연구원이 고급인력이라고 생각함. 이 고급인력을 더 고급화하는 것이 연구회 역할이 아닌가 생각함. 연구소와 대학, 연구소와 시민사회가 얼마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로의 장단점을 묶어서 융합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대덕 출연연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이 매우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랙션 측면에서는 부족함. 관계적 근접성을 높여주기 위한 출연(연) 상호간, 출연(연)과 기업, 출연(연)과 대학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연(연)은 여태까지는 첨단 과학기술의 산실이었음. 이제는 대학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만만치 않음.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을 국내외 세계를 종합한 국제연구소로 발전해 나가야함.
 - 지역대학과 결합하여 지역혁신사업에서 일정부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출연(연)도 이제는 바뀌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을 갖는 게 좋을 듯함. KISTI의 경우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있던 히스토리가 있음. 출연(연) 개편에서 좋은 롤 모델이 되었으면 함
- 출연(연) 연구에서 생산성이 중요함. 과학자에게는 원가개념이 빠져있음. 대기업 연구개발은 원가개념을 가져가고 있음. 우수인력 선진화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함. 대대적으로 하지 말고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함.
 - 예산, 연구인력, 장비 얘기함. 행정지원 인력이 또 중요함. 교류의 문제도 있음. 연구원에 신기술 발표회 같은 게 없음. 아이디어가 뺏길지 몰라서 안하고 있음. 서로간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제4차 KISTI 발전전략 포럼 회의록

2010. 7. 22. 16:30~18:00

KISTI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참여인사

외 부	조성복, 윤원창, 이석봉, 김선근, 윤종민, 현병환, 민병주, 임창만, 김왕환
내 부	박영서, 김중권, 민재규, 한선화, 이용호

□ 회의내용 요약

- 금일 발표된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향상 시스템은 타 연구소도 모방하고 갖추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됨. 출연(연)의 연구 환경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KISTI 적용방안도 함께 검토되었으면 좋겠음.

- 지식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대학은 개인연구 중심 특성이 많음. 대학의 연구수준이 많이 올라간 관계로 기술정보보다는 개발기술과 관련한 시장 정보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
 - 그런데 대학의 경우 이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으로, KISTI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거에는 문헌정보서비스가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기술시장 정보 및 사업화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KISTI와 각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 관련 정보지원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연계모델 개발이 필요함

- 대학 산학협력단을 포함하여 지역의 테크노파크 등 여러 지원기관에서 관련 정보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임. R&D예산의 5%정도를 그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한 R&D조직과 지원조직 간의 갈등도 있음
 - 이는 지원조직의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으로,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KISTI에 2가지를 제안하고 싶음. 먼저, R&D전에 연구기획이 필수적이므로, 대학·중소기업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기획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좋겠음.
 - 또한, 기술서비스의 초기단계로서 연구기획 관련교육에 KISTI가 앞장서야 함. 예를 들어 기술가치평가 등의 요구가 높은 분야 교육에 KISTI가 앞장섰으면 좋겠음.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KISTI 차원의 다양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에 대한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대학의 경우, bottom-up의 기획이 많기 때문임. 앞으로 대학에 전략적인 기획이 이루어지도록 KISTI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연구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관련 정보서비스는, 예를 들면 3P 분석(product, paper, patent analysis) 등이 있음. 다만, 혼자하기 보다는 수요처인 산학협력단, 테크노파크 등 외부의 연구진흥·기획 주체들과 연계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정보서비스 기획관련 교육은 현재 KIRD와 같은 기관이 있지만, 대폭적인 확대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 지역에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같은 성과활용이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KISTI를 통한 기술사업화 사업도 진행 중임. 지자체 차원에서 대덕특구 보유기술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연구단지에 별 기술이 없다는 의견도 있음. 그래서 혼돈이 있음. 테크노파크 운영 중인데, 지역특성을 살린 운영이 핵심인데 실상은 정부에서 틀을 짜주는 형태임.
 - 우선 지역전략산업에 KISTI와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화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 활성화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대덕특구에 기술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음. 1990년대 초반 원천기술을 개발할 때는 1~2건의 특허단위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수가 많아 단위 특허는 그 가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임.

- 연구생산성과 관련하여, 예전에는 자유롭게 연구비를 주는 소위 1세대의 R&D형태, 즉 자유방임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었음. 그러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상당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지식경제부 기업생산성 회의를 다녀온 적이 있음. 국가 R&D정책의 전략 부재, 연구사업 평가의 신뢰도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KISTI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될 필요가 있음. 즉, KISTI의 시장·기회분석 스크리닝 사업을 통해 이 같은 부분을 지원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제5차 KISTI 발전전략 포럼 회의록

2010. 8. 20. 16:00~17:30

KISTI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참여인사

외 부	조성복, 이택구, 윤원창, 이석봉, 손진훈, 조만형, 윤종민, 현병환, 민병주, 임창만, 박종원
내 부	김중권, 민재규, 한선화, 이용호

□ 회의내용 요약

- 금일 발표된 오하이오주 TBED프로그램 운영사례는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촉진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인 것으로 생각됨

- 미국의 경우, 지역에서의 선순환 구조가 잘 구축된 것 같으나, 국내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생각됨. 중앙정부와 오하이오주 지방정부와의 연계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음.
- 미국의 연방시스템이 좋은 건 50개의 주 하나하나가 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임. 일부가 해보고 좋으면 따라서 연방정부가 실행하는 자연스러운 bottom up 형태가 이루어져 있음.
- 주정부-연방정부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이 SBBR, SBIR, STTR, NSF 하위 partnership for innovation 프로그램 등이 있음. 기업차원에서 SBIR같은 grant를 받으면 자연히 펀드가 들어옴. 그런 비즈 에코시스템(생태계)이 미국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음. 펀딩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짐.
- 한국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돈을 요구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미국 주정부는 매칭펀드로 지원 사업을 구성해야 하는 점이 차이점임.
- 대덕밸리가 대전·충남지역의 산업단지로 인식되는 점이 안타까움. 오하이오주와 대전충남간의 비교는 규모상 어려움. 지금 대덕밸리가 지역의 문제로만 비추어지는 점이 안타까움. 이 지역 벤처기업의 특성은 기술 중심이라서 굉장히 오래 걸림. 대덕밸리 벤처기업은 생존율이 50%가 넘음.
- 지역 육성을 위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TBED 처럼 기술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음
- SBIR같은 경우 백만불 지원할 때 해당기업이 백만불 매출 올리면 성공으로 봄. 기술기반기업, 시장기반기업이 있음. 연구개발 지원금으로만 먹고사는 기업이 미국에도 있음. 나중에 M&A되면 그런 기업도 성공으로 봄.
- 대기업 유치 사례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일화로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이 있는데 미국 공장 유지가 한국보다 싸게 먹힌다는 것이 진짜인가 하는 시각이 많음. 미국정부의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이 상상 이상임.
- 각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과거와는 달리, 민간기업-대학-출연(연)을 묶는 지역기반의 클러스터링 재편이 필요함.

제6차 KISTI 발전전략 포럼 회의록

2010. 10. 12. 16:30~18:00

KISTI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참여인사

외 부	조성복, 이택구, 윤원창, 이석봉, 손진훈, 김선근, 조만형, 윤종민, 전승준, 민병주, 김왕환, 이중환, 임마뉴엘
내 부	박영서, 이정희, 김중권, 민재규, 한선화, 이용호

□ 회의내용 요약

- 한국 출연연구소의 성격 및 구조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과 공동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바가 있음

- 한국의 연구소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관습 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기술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품화·상용화가 중요함
 - 또한, 최근 외국인과의 교류가 늘어가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전략적으로 외국인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생각함.
- 정보화가 계속 진행되면 네트워크 자체가 조직보다 중요하게 됨. 네트워킹 패턴을 만들고 네트워킹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성공할 수 있음.
 - Cluster와 Cluster를 연결하는 Meta-Cluster의 개념이 필요함. 연구주체를 축으로, 새롭게 연구자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바꾸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앞으로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큼. 외국인 전문가의 역할도 필요함. 이에 대한 연구소들의 대응책 마련이 요청됨

<최근의 출연(연)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

-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 및 출연(연) 지배구조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한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을 실시
 - 현재 알려진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 및 출연(연) 구조정비의 방향은 과학기술계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
- 특히, 국과위가 독립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되는 경우에, 그 운영규모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성 제기
 - 국과위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과 적용이 필요. 즉, 창조적 혁신전략을 이용(자율성/수월성/책임성 강화)해야 함. 구체적으로, R&D 사업의 시스템적 관리기법 도입, 국가차원의 지식기반 경영토대의 구축,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누락·미흡부문의 보완 등이 필요
- 출연(연)의 거버넌스 및 제도개선의 문제도 국과위 강화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
 - 단, 국과위 소속의 단일조직으로 묶는 것은 출연(연)의 그동안 운영체계나 출연(연)의 대외관계,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음을 제기

<부록 2>

포럼 발표자료

만 든 이

한선화 - KISTI 정책연구실 실장
김상국 - KISTI 정책연구실
이필우 - KISTI 정책연구실
이윤석 - KISTI 정책연구실
김선태 - KISTI 정책연구실
박성욱 - KISTI 정책연구실
이용호 - KISTI 정책연구실
김은진 - KISTI 정책연구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전전략포럼 보고서

발행일 2010년 10월 30일 인쇄 2010년 10월 30일 발행
발행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전화: 042)828-5114(代)
발행인 박영서
편집인 정책연구실
디자인/인쇄 미래미디어 042-487-4012
비매품 ISBN 978-89-6211-614-4